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 조사

2004. 6

KOTRA
해외조사팀

목 차

I. 브라질 수입시장 개관/1

1. 브라질 경제 현황 및 전망/1
2. 브라질 수입규모 추이/1
3. 국별 수입 추이/3
4. 품목별 수입 추이/4
5. 대브라질 수출의 의의/5

II.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 현황/7

1. 한/중/일 3국의 대브라질 수출 규모 및 점유율/7
2. 수출 품목수의 변화/8
3. 10대 수출품목 변화/10
4.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한-일 경합 동향/12

III. 한/중/일 경합동향 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대책/23

[첨부]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일 1위 수출 품목 리스트/28

I. 브라질 수입시장 개관

1. 브라질 경제 현황 및 전망

-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경기둔화 현상이 지속되어 2003년까지 미약한 경제 성장을 보임
 - 2001년 1.3%, 2002년 1.9%, 2003년 -0.2%의 매우 낮은 성장세 기록¹⁾
- 2003. 6월부터 시작된 이자율 인하 조치 및 소비·투자 심리 개선으로 2003. 4분기부터 경기 회복기로 들어섬
 - 룰라 정부 취임 이후, 콜금리 인하 정책 등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대외신뢰도 향상과 수출호조, 외국인투자 확대 달성
- 2004년 3.5%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BRICs 국가로서의 고속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IMF 구제금융협약 2003년 말 종료, 긴축재정정책기조 완화 및 룰라 신정부의 수출촉진 정책 가속화
 - 2004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2.7%를 기록하면서 올해 성장률 3.3%에서 3.5%로 낙관
 - 장기적으로 2025년에는 이태리, 2031년에는 프랑스, 2036년에는 영국과 독일을 능가하여 세계 6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²⁾

2. 브라질 수입규모 추이

- 2003년 브라질 수입시장 규모는 US\$482억으로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의 US\$1,709억 시장에 이은 제 2위 시장임
 - 칠레가 US\$169억으로 3위 차지

1) UN 중남미 경제 위원회(CEPAL), '03년은 추정 수치임

2) 골드만 삭스, 'Dreaming with BRICs : The Path to 2050'

<2003년 중남미 주요국 수입 규모 추이>

(단위 : US\$억, %)

국명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멕시코	1,705.5	1.1
브라질	482.6	2.2
칠레	169.7	18.8
아르헨티나	138.1	53.6
콜롬비아	135.9	10.6
페루	84.2	12.2
베네수엘라	79.7	-28.1

(자료원 : WTA)

- 1998년 경제 위기, 2001년 헤알화 평가 절하, 국내경기 부진과 2002년 대선결과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감소 등으로 수입규모는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2003년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 2004년 1~4월의 경우 무려 17.6%의 성장을 보였으나 수출도 크게 상승하여 무역수지 흑자 지속

<브라질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US\$억, %)

년도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무역수지
1998	511.4(-3.5)	577.1(-3.4)	-65.7
1999	480.1(-6.1)	492.1(-14.7)	-12
2000	550.8(14.7)	558.3(13.4)	-7.5
2001	582.2(5.7)	555.8(-0.5)	26.4
2002	603.6(3.7)	472.3(-15.0)	131.3
2003	730.8(21.1)	482.6(2.2)	248.2
2004.4	260.4(25.4)	179.1(17.6)	81.3

(자료원 : WTA)

3. 국별 수입 추이

- 브라질의 최대 수입대상국인 미국은 브라질 전체 수입규모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점차 하락 추세임
 - 90년대 지속한 20% 이상의 점유율이 2003년부터 19.82%로 떨어짐 (2004년 4월 현재 19.51% 차지)
- MERCOSUR 파트너로서 브라질의 두 번째 교역 대상국인 아르헨티나 역시 1998년 13.92%에서 9.68%으로 점유율이 줄었으며, 교역 규모의 경우 무려 41.8%나 하락함
- 이 외에도 독일, 일본, 이태리, 영국, 스페인 등이 규모와 점유율 부분에서 감소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브라질의 수입대상국으로 급부상한 국가는 중국으로 규모부분에서는 배로 증가했으며, 1998년 12위에서 2003년 5위 기록
 - 수입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 또한 연평균 80%씩 증가중 이어서 중국과 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이나 특혜무역협정이 실현될 경우 중국이 브라질 수입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US\$9.9 → US\$10.8(규모), 1.71% → 2.24%의 성장으로 2003년 11위를 기록
 - 브라질 경제의 회복세와 수출 확대에 따른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점유율 또한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

<브라질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 US\$억, %)

1998				2003			
순위	국명	규모	점유율	순위	국명	규모	점유율
	전체	577.1	100.00		전체	482.6	100.00
1	미국	135.1	23.40	1	미국	95.6	19.82
2	아르헨티나	80.3	13.92	2	아르헨티나	46.7	9.68
3	독일	52.4	9.07	3	독일	42.1	8.71
4	일본	32.7	5.67	4	일본	25.2	5.22
5	이태리	32.2	5.58	5	중국	21.5	4.45
6	프랑스	19.7	3.42	6	프랑스	17.6	3.66
7	영국	14.9	2.58	7	이태리	17.5	3.63
8	캐나다	13.4	2.32	8	나이지리아	14.9	3.09
9	스페인	11.9	2.07	9	영국	12.0	2.49
10	스웨덴	11.0	1.91	10	알제리	11.1	2.31
11	우루과이	10.4	1.81	11	한국	10.8	2.24
12	중국	10.3	1.79	12	스페인	9.7	2.02
13	한국	9.9	1.71	13	스위스	9.3	1.94
14	멕시코	9.8	1.70	14	사우디	8.8	1.84
15	스위스	8.9	1.55	15	칠레	7.9	1.65

(자료원 : WTA)

4. 품목별 수입 추이

- 브라질의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는 2003년 총 수입규모의 7.83%을 차지하였으며, 1998년에 비해 92% 더 수입되었음
- 한편, 1998년 1위를 차지한 승용차의 경우 현지 생산 증가로 인해 2003년 15위로 하락
- 1998년 20대 수입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석유가스, 발전세트와 회전 변환기, 칼륨비료, 항공기 부품, 비료, 살충제 및 소독제, 그리고 내연 기관의 부품 등 7개의 품목이 2003년 20대 품목에 추가됨

- 반면, 1996년 주요 수입 품목으로 꼽히던 화물자동차, 유선전화전신 기기, 기타기계류, 무선통신기기, 기타 항공기, 쌀, 면 등이 탈락함

<브라질의 20대 수입품목>

(단위 : US\$백만, %)

HS 코드	품명	1998			2003		
		순위	수입액	비중	순위	수입액	비중
전체			57,714	100.00		48,260	100.00
2709	원유	2	1,967	3.41	1	3,777	7.83
2710	석유와 역청유	3	1,861	3.22	2	1,816	3.76
8708	자동차 부품	4	1,557	2.70	3	1,501	3.11
8542	반도체	6	867	1.50	4	1,471	3.05
1001	밀과 메슬린	10	814	1.41	5	1,010	2.09
3004	의약품	8	831	1.44	6	897	1.86
8411	터보제트	17	566	0.98	7	775	1.61
2711	석유가스	24	412	0.71	8	745	1.55
8529	무선송수신기부품	15	594	1.03	9	737	1.53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70	184	0.32	10	658	1.36
2701	석탄	14	633	1.10	11	645	1.34
3104	칼륨비료	21	465	0.81	12	638	1.32
8473	전자기기부품	19	543	0.94	13	610	1.27
8471	컴퓨터	5	974	1.69	14	603	1.25
8703	승용차	1	2,677	4.64	15	578	1.20
2933	질소해테로고리 화합물	13	710	1.23	16	574	1.19
8803	항공기 부품	25	406	0.70	17	509	1.06
3105	비료	49	247	0.43	18	496	1.03
3808	살충제.소독제	41	285	0.49	19	486	1.01
8409	내연기관의 부품	22	449	0.78	20	475	0.99

(자료원 : WTA)

5. 대브라질 수출의 의의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규모는 2002년 8.0%, 2003년 19.3%의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남미 수출 규모는 각각 -8.9%, -0.7%로 감소, 1998년 이후 지속된 중남미 지역의 장기 경제 불황을 거스르지는 못

하였음

- 그러나 올해 중남미 경제 전망이 밝아지면서 우리의 대 중남미 수출도 지난 2년간의 감소 끝에 올해부터 회복세 보이기 시작
 - IMF 3.8% → 3.9%; Cepal 3.5% → 4.0%으로 중남미 경제 성장률 전망 조정
 - 올해 1~4월 수출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11.6% 증가
- 우리의 대브라질 수출 규모가 대중남미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임
 - 중남미 국가들 중 브라질은 2003년 제 3위, 2004년 1~4월 제 2위 수출대상국임
- 2001년을 제외한 대브라질 수출 증가율은 대중남미 수출 증가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더 큰 폭으로 변화중
 - 1999년 대중남미 수출 2.5% 감소, 대브라질 수출 32.5% 감소
 - 2000년 대중남미 수출 8.4% 증가, 대브라질 수출 42.6% 증가
- 따라서 우리나라의 US\$100억 수출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브라질 수출은 큰 영향력과 비중을 지니고 있음

<대중남미 및 브라질 수출 동향>

(단위 : US\$백만, %)

연도	대중남미 수출(A)		대브라질 수출(B)		비중(B/A)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1998	8,867	2.3	1,792	4.7	20.2
1999	8,645	-2.5	1,209	-32.5	14.0
2000	9,369	8.4	1,724	42.6	18.4
2001	9,730	3.9	1,611	-6.5	16.6
2002	8,864	-8.9	1,247	-22.6	14.1
2003	8,802	-0.7	1,137	-8.8	12.9
2004.4	3,395	11.6	523	29.1	15.4

(자료원 : KOTIS)

II.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일 경쟁 현황

1. 한/중/일 3국의 대브라질 수출 규모 및 점유율

- 1998년 대비 2003년 브라질 전체 수입 규모는 16.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수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
 - 중국이 107.7%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한국이 9.2%, 일본이 7.5% 증가
- 일본 > 한국 > 중국 순의 수출 규모가 2002년 중국이 US\$1,554백만의 규모로 같은 해 US\$1,066백만을 기록한 한국을 추월
 - 2004년 1~4월의 실적만을 본다면 중국 US\$908.1백만, 일본 US\$816.4백만, 한국 US\$473.8백만으로 3국 중 중국이 1위 차지
- 특히 브라질 전체 수입 규모가 17.7% 감소한 것을 비롯, 한국의 수출 규모 47.7% 하락, 일본의 수출 규모 30.5% 하락한 2002년의 경우 중국은 오히려 14.5%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 유지

<연도별 한/중/일 대브라질 수출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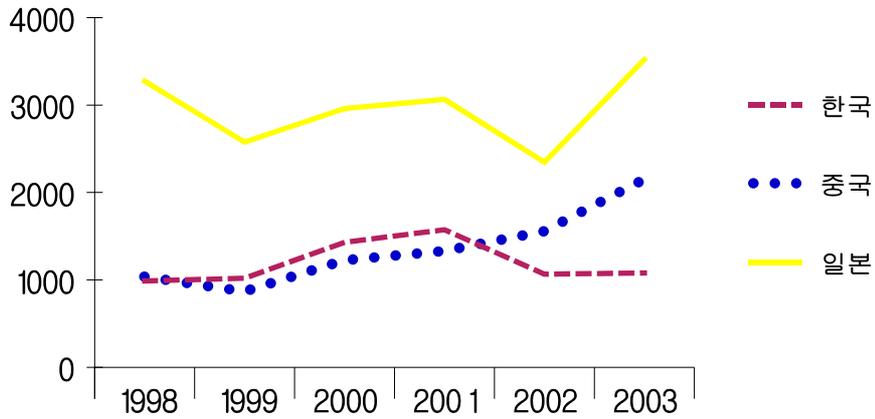
(단위 : US\$백만, %)

수출국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전체	57,714	49,210	55,834	55,579	47,232	48,259	-16.4
증가율	-3.4	-14.7	13.5	-0.5	-17.7	2.2	
한국	988 (1.7)	1,019 (2.1)	1,430 (2.6)	1,574 (2.8)	1,066 (2.3)	1,079 (2.2)	9.2
증가율	-27.1	3.1	40.3	10.1	-47.7	1.2	
중국	1,034 (1.8)	865 (1.7)	1,222 (2.2)	1,328 (2.4)	1,554 (3.3)	2,148 (4.4)	107.7
증가율	-11.4	-16.3	41.3	8.7	14.5	38.2	
일본	3,274 (5.6)	2,576 (5.2)	2,961 (5.3)	3,064 (5.5)	2,347 (4.9)	3,520 (7.3)	7.5
증가율	-7.3	-21.3	14.9	3.5	-30.5	50.0	

* 괄호안은 전체 브라질 수입 규모 대비 점유율임

* 주 : 증가율은 1998년 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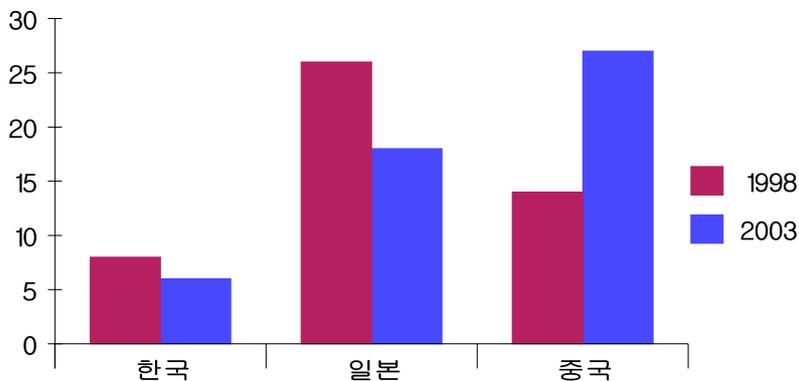
(자료원 : WTA)



2. 수출 품목수³⁾의 변화

- 1998년과 2003년 브라질 수입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한/중/일 수출 품목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1위 품목 수는 줄어든 반면, 중국은 대폭 증가
 - 한국의 1위 품목 수 : 1998년 8개 → 2003년 6개 ; -2개
 - 일본의 1위 품목 수 : 1998년 26개 → 2003년 18개 ; -8개
 - 중국의 1위 품목 수 : 1998년 14개 → 2003년 27개 ;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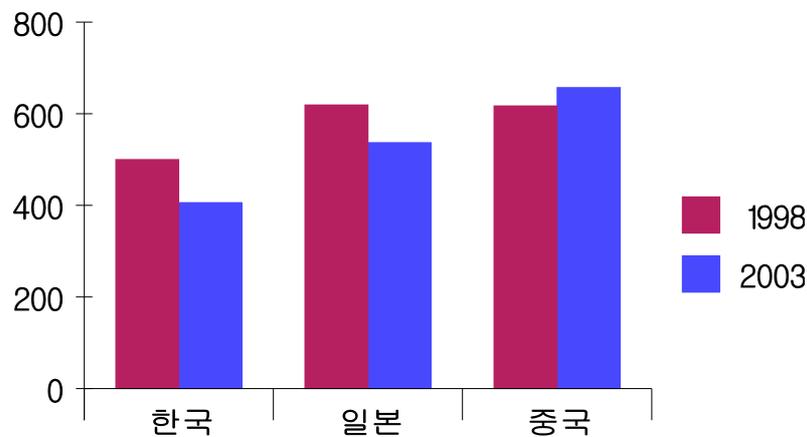
<브라질 수입시장에서의 1위 품목 수 변화>



3) HS코드 4단위 기준, 수출 규모 US\$만 이상

-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중/일 3국의 대브라질 총 수출 품목수(US \$만 이상 수출)는 아래와 같이 변화함
 - 한국은 1996년 500개에서 2003년 406개로 94개 감소
 - 일본은 1996년 619개에서 2003년 537개로 82개 감소
 - 중국은 1996년 617개에서 2003년 657개로 40개 증가

<브라질 수입시장에서의 총 수출품목수 변화>



- 한국과 일본의 수출 품목 수와 1위 품목이 하락하는 동안 중국은 수출 품목 다양화 및 1위 품목 수 증가 달성
- 2003년 기준 일본의 수출 규모가 중국의 규모보다 US\$1,372백만 높은 반면에 중국의 품목 수는 일본보다 120개가 더 많아 중국이 일본보다 수출품 다양화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수출규모는 1998~2003년간 9.2% 증가, 일본의 7.5%에 비해 성장률은 높지만 품목수는 18.8%나 떨어져, 13.2% 감소한 일본 품목수 보다 오히려 감소폭이 높음
 - 중국, 일본에 비해 우리의 대브라질 수출품 다양화 부족

3. 10대 수출품목 변화

- 1998~2003년 동안 3국 모두 10대 품목의 반 이상이 변한 바 있어 브라질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빠르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0대 품목 중 한국은 5개, 중국은 6개, 일본은 무려 7개가 추가됨
- 전기기기 중심의 수출이 이루어진 점에서 우리의 대브라질 10대 수출 품목은 크게 변한바가 없으나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관련 제품이 현지 생산 증가로 탈락
 - 2003년 신규 편입된 품목 : 기계류 부품, 액정디바이스와 기타 광학기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다이오드.트랜지스터, 인쇄회로
 - 1996년 10대 품목중 2003년 탈락 품목 : 10인 이상의 자동차, 타이어, 승용차, 기체펌프.팬.후드, 음성.영상 재생기 부품
- 중국 역시 전기기기와 기계류 중심의 수출을 지속했으나 완구류, 가방류와 같은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전자직접회로, 컴퓨터 등 고급 기술을 요하는 하이테크 제품⁴⁾의 비중 증가함
 - 2003년 신규 편입된 품목 : 안테나 등 무선전화.TV 부품, 석탄, 액정디바이스와 기타 광학기기, 전자직접회로,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음성.영상 재생기 부품
 - 1996년 10대 품목중 2003년 탈락 품목 : 기타 완구, 음성재생기기, 케이스.가방, 무선통신기기, 전동기와 발전기, 전열기기
- 일본은 2003년에 들어서면서 자동차류, 전기기기류, 기계류에 주요 수출 품목이 초점이 맞춰졌으며, 하이테크로 분류되는 품목이 대거 탈락하는 등 퇴세적인 움직임을 보임
 - 2003년 신규 편입된 품목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내연기관의 부품, 사무용 기계의 부품,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내연기관의 부분품과 동력조절 장치, 베어링, 자동차 부품

4) 미국 센서스국(Bureau of Census)의 하이테크 품목분류 기준에 의거, <한/중/일 10대 수출 품목 변화>에 나와있는 하이테크 제품은 2933, 8417, 8471, 8473, 8479, 8519, 8525, 8542임

- 1996년 10대 품목중 2003년 탈락 품목 : 유선전화.팩스기기 등, 기타 기계류, 봉합한 기타의 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안테나 등 무선전화.TV 부품, 송신기기 및 비디오카메라, 자동자료처리 기계
- 2003년 기준 10대 수출 품목 중 한/중/일 경합 품목은 전자직접회로와 기계류 부품으로, 특히 전자직접회로의 경우 우리의 1위, 일본의 2위 품목이어서 당분간 브라질 시장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한/중/일 10대 수출 품목 변화>

순위	한국		중국		일본	
	1998	2003	1998	2003	1998	2003
1	10인이상의 자동차 (8702)	전자 직접회로 (8542)	코코스 (2704)	코코스 (2704)	승용차 (8703)	자동차 부품 (8708)
2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8540)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8540)	기타 완구 (9503)	안테나 등 무선전화. TV 부품 (8529)	전자 직접회로 (8542)	전자 직접회로 (8542)
3	타이어 (4011)	안테나 등 무선전화. TV 부품 (8529)	컴퓨터 (8471)	석탄 (2701)	자동차 부품 (8708)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
4	승용차 (8703)	사무용 기계의 부품 (8473)	음성재생 기기 (8519)	액정 디바이스와 기타 광학기기 (9013)	유선전화. 팩스기기 등 (8517)	내연기관의 부품 (8409)
5	전자 직접회로 (8542)	액정 디바이스와 기타 광학기기 (9013)	케이스.가방 (4202)	전자 직접회로 (8542)	기타 기계류 (8479)	사무용 기계의 부품 (8473)
6	합성 필라멘트사 (5402)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5407)	무선통신 기기 (8527)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5407)	봉합한 기타의 관 (7306)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8541)

7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8504)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8541)	사무용 기계의 부품 (8473)	컴퓨터 (8471)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승용차 (8703)
8	안테나 등 무선전화. TV 부품 (8529)	인쇄회로 (8534)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기계류 부품 (8473)	안테나 등 무선전화. TV 부품 (8529)	내연기관의 부분품과 동력 조절장치 (8483)
9	기체펌프. 팬.후드 (8414)	합성 필라멘트사 (5402)	전동기와 발전기 (8501)	음성. 영상 재생기 부품 (8522)	송신기기 및 비디오 카메라 (8525)	베어링 (8482)
10	음성. 영상 재생기 부품 (8522)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8504)	전열기기 (8516)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컴퓨터 (8471)	자동차 부품 (8714)

(자료원 : WTA)

4.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한-일 경합 동향

가. 한-중 경합 동향

HS 4단위 기준, 대브라질 수출액이 US\$백만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1998년과 2003년 경합품목 수 비교

-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품목중 US\$백만 이상인 품목수는 1998년 110개에서 2003년 91개로 19개 품목(-17.3%)이 감소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동안 161개에서 197개(22.3%)로 증가
 - 2003년 양국간의 품목수 차이는 무려 106개로 중국이 우리보다 배가 넘는 품목을 수출
- 이 중 양국간 경합을 보이고 있는 품목 수는 1998년 48개에서 2003년 60개로 12개 증가

- 1998년 US\$백만 이상 수출되는 우리 품목 중 44.5%가 중국과 경쟁한 바 있으나 2003년의 경우 65.9%로 상승, 우리 입장에서의 중국과의 경합은 심화되는 추세임
- HS 2단위 기준 경합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군은 전기전자(20개 → 25개), 기계류(10개 → 9개), 유기화합물(4개 → 6개), 광학.측정.정밀기기(2개 → 5개) 순임
- 의료용품(HS 30), 유리(HS 70), 도포직물(HS 59)이 2003년 경합품목군에 추가되었으며,
- 편물제의류(HS 61), 의류(HS 62), 약기(HS 92)는 제외됨
- 1998년 기준, 우리나라 품목 중 브라질 수입시장 점유율이 중국보다 높은 품목 수는 전체 경합 품목수인 48개 중 27개로, 21개 품목에서 점유율 우위를 보이는 중국을 앞섰지만, 2003년 역전이 되어 60개 경합 품목중 중국의 37개 품목이 우리의 점유율을 능가함
- 1998년 전체 경합 품목의 56.3%에서 한국이 점유율 우위를 보였으나, 2003년에는 전체 경합 품목의 38.3%만이 중국을 앞섬

<한-중 주요 경합 품목 변화>

품목 (HS 2단위)	1998	2003	비고
유기화합물(29) (4개 → 6개)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2931)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2933) 핵산및염과헤테로고리 화합물(2934) 당류와 당에테르(2941)	<u>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 복시산(2916)</u> <u>폴리카르복시산(2917)</u>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2931)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 (2933) 핵산및염과헤테로고리 화합물(2934) 당류와 당에테르(2941)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2
의료용품(30) (0개 → 1개)		소매용 의약품(3004)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1

염료.페인트(32) (1개 → 1개)	합성유기착색제와 조제품(3204)	합성유기착색제와 조제품(3204)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0
플라스틱(39) (1개 → 3개)	스티렌의 중합체(3903)	아세탈수지, 기타폴리에테르(3907) 접착성 판,쉬트,필름 (3919)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3926)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3
고무(40) (1개 → 3개)	타이어(4011)	스티렌,이소부텐 등 (4002) 타이어(4011)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4016)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2
인조필라멘트섬유(54) (2개 → 2개)	합성필라멘트사(540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5407)	합성필라멘트사(540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5407)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0
인조스테이플섬유(55) (1개 → 1개)	면혼방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5513)	합성스테이플섬유 (5503)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1
도포직물(59) (0개 → 1개)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5902)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1
편물제의류(61) (1개 → 0개)	기타 의류(6114)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0
의류(62) (1개 → 0개)	여자용 내의류(6208)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0
유리(70) (0개 → 1개)		전구,음극선관(7011)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1
철강제품(73) (2개 → 1개)	관연결구류(7307) 철강제 스크루,볼트, 너트(7318)	철강제 스크루,볼트, 너트(7318)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0

기계류(84) (10개 → 9개)	진공펌프,기체압축기 (8414) 냉장고,냉동고(8418) 재봉기.재봉기용바늘 (8452) <u>인곳용의 주형과</u> <u>주조기(8454)</u> 컴퓨터(8471) 컴퓨터,사무용기계 (8473) <u>사출기,압출기,성형기</u> <u>(8477)</u> <u>기타기계류(8479)</u> <u>파이프,보일러동체</u> <u>(8481)</u> 볼베어링(8482)	진공 펌프,기체 압축기 (8414) <u>공기조절기(8415)</u> 냉장고,냉동고(8418) <u>물가열기,건조기(8419)</u> 재봉기.재봉기용바늘 (8452) 컴퓨터(8471) 컴퓨터,사무용기계 (8473) <u>주형틀,주형베이스</u> <u>(8480)</u> 볼베어링(8482)	○ 탈락품목 : 4 ○ 신규품목 : 3
-----------------------	--	---	--------------------------

<p>전기전자(85) (20개 → 25개)</p>	<p>전동기와 발전기(8501)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8504) 수직식 전동공구(8508) 가정용소형전기기기 (8516) 유선전화기및팩스 (8517) 마이크,확성기(8518) 오디오및비디오부분품 (8522) 마그네틱테이프,디스크 (8523) 무선통신기기(8527) TV부품(8529) 고정식,가변식 축전기 (8532) 전기저항기(8533) 인쇄회로(8534) 퓨즈,계전기(8536) 필라멘트, 방전램프 (8539) 열전자관, 냉음극관 (854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8541) 반도체(8542) 반도체부품(8543) 절연전선,케이블(8544)</p>	<p>전동기와 발전기(8501) 전기기기 부품(8503) 변압기, 정지형변환기 (8504) 일차전지(8506) 축전지(8507) 내연기관시동용 전기기기(8511) 가정용소형전기기기 (8516) 유선전화기및팩스 (8517) 마이크,확성기(8518) 오디오및비디오부분품 (8522) 마그네틱테이프,디스크 (8523) 무선전화용송신기기 (8525) TV부품(8529) LCD,LED(8531) 고정식,가변식 축전기 (8532) 전기저항기(8533) 인쇄회로(8534) 퓨즈,계전기(8536) 퓨트,계전기부품(8538) 필라멘트, 방전램프 (8539) 열전자관, 냉음극관 (854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8541) 반도체(8542) 반도체부품(8543) 절연전선,케이블(8544)</p>	<p>○ 탈락품목 : 2 ○ 신규품목 : 7</p>
<p>차량(87) (1개 → 1개)</p>	<p>차량 부속품(8714)</p>	<p>자동차부품(8708)</p>	<p>○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1</p>

광학.측정.정밀기기 (90) (2개 → 5개)	사진식복사기(9009)	액정디바이스(9013)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4
	의료기기(9018)	의료기기(9018) 엑스선기기(9022) 오실로스코우프(9030) 기타 측정및검사기기 (9031)	
약기(92) (1개 → 0개)	기타 현약기(9207)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0

(자료원 : WTA)

나. 한-일 경합 동향

HS 4단위 기준, 대브라질 수출액이 US\$백만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1998년과 2003년 경합품목 수 비교

-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품목중 US\$백만 이상인 품목수는 1998년 110개에서 2003년 91개로 19개 품목(-17.3%)이 감소했으며, 일본은 233개에서 202개로 31개 품목(-13.3%)이 감소함
 - 양국간의 품목수 차이는 123개에서 111개로 차츰 좁혀지고 있음
- 이 중 양국간 경합을 보이고 있는 품목 수는 1998년 74개에서 2003년 70개로 5개 감소
 - 그러나 US\$백만 이상 수출되는 우리 품목 중 일본과 경쟁한 품목 비중이 1998년 68.2%에서 2003년 76.9%로 증가, 우리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이 일본의 품목과 일치하고 있는 추세임
- HS 2단위 기준 경합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군은 전기전자(26개 → 23개), 기계류(17개 → 14개), 플라스틱(4개 → 8개), 유기화합물(3개 → 5개), 광학.측정.정밀기기(3개 → 5개) 순임
 - 인조스테이플섬유(HS 55), 공구.도구(HS 82)가 2003년 경합 품목군에 추가되었으며,
 - 염료.페인트(HS 32), 지와 지제품(HS 48), 부직포(HS 56), 약기(HS

92)는 경합 품목군에서 제외됨

- 1998년 기준, 우리나라 품목 중 브라질 수입시장 점유율이 일본보다 높은 품목 수는 전체 경합 품목수인 74개 중 18개로, 56개 품목에서 점유율 우위를 보이는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
- 2003년에도 일본의 점유율 우위는 계속되어 총 70개의 경합 품목중 49개 품목에서 일본이 우리 제품에 비해 우위를 보임
- 1998년 전체 경합 품목 중 24.3%에서 점유율 우위를 보인 우리 품목 비중이 2003년에는 30.0%로 증가

<한-일 주요 경합 품목 변화>

품목 (HS 2단위)	1998	2003	비고
유기화합물(29) (3개 → 5개)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2933) 핵산및염과헤테로고리과합물(2934) 당류와 당에테르(2941)	<u>볼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2916)</u> <u>폴리카르복시산(2917)</u>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2933) 핵산및염과헤테로고리과합물(2934) 당류와 당에테르(2941)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2
의료용품(30) (1개 → 2개)	소매용 의약품(3004)	<u>인혈.수혈.백신.미생물</u> <u>배양체(3002)</u> 소매용 의약품(3004)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1
염료.페인트(32) (1개 → 0개)	<u>합성유기착색제와</u> <u>조제품(3204)</u>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0

플라스틱(39) (4개 → 8개)	스티렌의 중합체(3903) 아세탈수지, 기타 폴리에테르(3907) 접착성 판.쉬트.필름 (3919) 기타 판,쉬트,필름 (3920)	<u>에틸렌의 중합체(3901)</u> <u>프로필렌(3902)</u> 스티렌의 중합체(3903) 아세탈수지, 기타 폴리에테르(3907) 접착성 판.쉬트.필름 (3919) 기타 판,쉬트,필름 (3920) <u>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필름(3921)</u> <u>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3926)</u>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4
고무(40) (2개 → 3개)	스티렌,이소부텐 등 (4002) 타이어(4011)	스티렌,이소부텐 등 (4002) 타이어(4011) <u>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4016)</u>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1
지와 지제품(48) (1개 → 0개)	<u>도포한 지와 판지 (4810)</u>	-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0
인조필라멘트섬유 (54) (2개 → 1개)	합성필라멘트사(5402) <u>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5407)</u>	합성필라멘트사(5402)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0
인조스테이플섬유 (55) (0개 → 1개)		합성스테이플섬유 (5503)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1
부직포(56) (1개 → 0개)	<u>부직포(5603)</u>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0
철강(72) (3개 → 1개)	<u>평판압연제품(도금, 도포안한것)(7209)</u> <u>평판압연제품(도금, 도포한것)(7210)</u> <u>철.비합금강의 선(7217)</u>	<u>평판압연제품(7211)</u>	○ 탈락품목 : 3 ○ 신규품목 : 1
철강제품(73) (2개 → 3개)	<u>철강제의 연선, 로프(7312)</u> 철강제 스크루,볼트, 너트(7318)	철강제 스크루,볼트, 너트(7318) <u>스프링(7320)</u> 기타 철강제품(7326)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2
알루미늄(76) (1개 → 1개)	<u>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7616)</u>	<u>알루미늄 박(7607)</u>	○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1

공구,도구(82) (0개 → 2개)		<u>공구(8207)</u> <u>공구용의 판,봉,땀</u> <u>(8209)</u>	○ 탈락품목 : 0 ○ 신규품목 : 2
기계류(84) (17개 → 14개)	진공펌프, 기체압축기(8414) 공기조절기(8415) 냉장고,냉동고(8418) 물가열기,건조기(8419) 원심분리기(8421) 포크리프트 트럭(8427) <u>양하용의 기계류(8428)</u> 재봉기.재봉기용 바늘(8452) <u>잉곳용의 주형과</u> <u>주조기(8454)</u> 금속절삭가공용의 선반(8458) 컴퓨터(8471) 컴퓨터,사무기기부품(8473) <u>사출기,압출기,성형기(8477)</u> 기타 기계류(8479) 주형틀, 주형베이스(8480) <u>파이프, 보일러동체(8481)</u> 불베어링(8482)	진공펌프, 기체압축기(8414) 공기조절기(8415) 냉장고,냉동고(8418) 물가열기,건조기(8419) 원심분리기(8421) 포크리프트 트럭(8427) <u>자주식불도저(8429)</u> 재봉기.재봉기용 바늘(8452) 금속절삭가공용의 선반(8458) 컴퓨터(8471) 컴퓨터, 사무기기부품(8473) 기타 기계류(8479) 주형틀, 주형베이스(8480) 불베어링(8482)	○ 탈락품목 : 4 ○ 신규품목 : 1

<p>전기전자(85) (26개 → 23개)</p>	<p>전동기와 발전기(8501) 변압기,정지형변환기 (8504) 축전지(8507) 수직식 전동공구(8508) 내연기관시동용 전기기기(8511) 차량용 조명.신호기기 (8512) 가정용 소형전기기기 (8516) 유선전화기 및 팩스 (8517) 마이크,확성기(8518) 오디오및비디오부품 (8522) 마그네틱테이프,디스크 (8523) 무선전화용송신기기 (8525) 레이다기기.리모콘 (8526) 무선통신기기(8527) TV부품(8529) 고정식,가변식 축전기 (8532) 전기저항기(8533) 인쇄회로(8534) 전기회로의 개폐. 보호용기기(8535) 1,000볼트 이하의 퓨즈, 계전기(8536) 필라멘트, 방전램프 (8539) 열전자관, 냉음극관 (854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8541) 반도체(8542) 반도체 부품(8543) 절연전선, 케이블(8544)</p>	<p>전동기와 발전기(8501) 전기기기 부품(8503) 변압기,정지형변환기 (8504) 일차전지(8506) 축전지(8507) 내연기관시동용 전기기기(8511) 유선전화기 및 팩스 (8517) 마이크, 확성기(8518) 오디오 및 비디오부품 (8522) 마그네틱테이프,디스크 (8523) 무선전화용송신기기 (8525) TV부품(8529) 고정식,가변식 축전기 (8532) 전기저항기(8533) 인쇄회로(8534) 1,000볼트 이하의 퓨즈, 계전기(8536) 퓨즈, 계전기부품(8538) 필라멘트, 방전램프 (8539) 열전자관, 냉음극관 (854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8541) 반도체(8542) 반도체 부품(8543) 절연전선, 케이블(8544)</p>	<p>○ 탈락품목 : 6 ○ 신규품목 : 3</p>
---------------------------------	--	--	----------------------------------

<p>차량(87) (6개 → 2개)</p>	<p><u>10인 이상의 자동차(8702)</u> 승용차(8703) <u>화물자동차(8704)</u> 자동차부품(8708) <u>모터사이클(8711)</u> <u>차량 부품품(8714)</u></p>	<p>승용차(8703) 자동차부품(8708)</p>	<p>○ 탈락품목 : 4 ○ 신규품목 : 0</p>
<p>광학.측정.정밀기기(90) (3개 → 5개)</p>	<p><u>사진식복사기(9009)</u> 의료기기(9018) 오실로스코우프(9030)</p>	<p><u>액정디바이스(9013)</u> 의료기기(9018) <u>엑스선기기(9022)</u> 오실로스코우프(9030) <u>기타 측정및검사기기(9031)</u></p>	<p>○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3</p>
<p>악기(92) (1개 → 0개)</p>	<p><u>오르간,아코디온(9207)</u></p>		<p>○ 탈락품목 : 1 ○ 신규품목 : 0</p>

III. 한/중/일 경합동향 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대책

1. 브라질 수입시장에서 중국 약진, 한국과 일본의 증가율은 중국에 비해 낮아

- 지난 5년간(1998 ~ 2003) 브라질 수입시장규모가 16.4%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9.2%, 중국은 107.7%, 일본은 7.5% 증가
 - 중국은 두배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성장률은 가장 낮지만 3국 중 가장 높은 점유율 차지
 - 우리나라는 1999 ~ 2001년 동안 일본 다음으로 3국 중 2위를 차지했으나 2002년 중국으로 인해 추월당했으며 중국의 약진으로 인해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

2. 중국, 품목 다변화에 성공했으나 한국.일본은 다양성 감소

- 같은 기간동안 3국의 대브라질 수출 품목수(HS코드 4단위, US\$만 이상 기준)를 비교해 보면 한국 500개 → 406개, 일본 619개 → 537개로 각각 94개, 82개 감소한 반면 중국은 617개 → 657개로 40개 증가
- US\$백만 이상 규모의 수출 품목수의 변화도 한국(110개 → 91개)과 일본(233개 → 202개)은 감소한 반면 중국은 (161개 → 197개) 증가함
- 2003년 HS 2단위 기준 3대 수출 품목이 전체 대 브라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75.4%, 일본 69.7%, 중국 57.4%로 품목 수 및 수출 규모 비중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에 비해 특정 품목으로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음

3. 한-일 경합 비중이 한-중 경합 비중에 비해 높으나, 한-중 경합 빠르게 확대 중

- 한-일 경합품목수는 1998년 74개 → 2003년 70개로 5개 품목이 감소했으나, 경합 품목이 우리 수출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2% → 76.9%로 증가
- 한-중 경합품목수는 1998년 48개 → 2003년 60개로 12개의 품목이 늘어났으며, 경합 품목이 우리 수출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4.5% → 65.9%로 확대
- 전체 경합 품목 중 중국에 비해 수입 점유율이 높은 품목 비중은 줄었으며, 일본에 비해 점유율이 높은 품목 비중은 상승함
 - 1998년 중국과의 경합 품목 중 56.3%에서 점유율 우위를 보인 우리 품목 비중이 2003년에는 38.3%로 감소
 - 1998년 일본과의 경합 품목 중 24.3%에서 점유율 우위를 보인 우리 품목 비중이 2003년에는 30.0%로 증가

4. 한국, 중국과 일본에 비해 수입시장에서의 1위 품목 크게 낮아

- 브라질 수입시장에서 HS 4단위, US\$백만 이상의 품목 수는 1998년 943개에서 2003년 849개로 감소한 가운데 3국의 수입시장에서의 1위 품목 수 변화를 살펴보면,
 - 한국, 2개 감소(8개 → 6개),
 - 일본, 8개 감소(26개 → 18개),
 - 중국, 13개 증가(14개 → 27개)로 중국만이 브라질 시장에서의 영역을 넓히고 있음
- 그러나 1998년 한국과 일본의 1위 품목이 2003년 중국의 1위 품목으로 이동한 것 보다는 브라질 최대 수입대상국인 미국과 MERCOSUR의 주요 파트너인 아르헨티나로 인해 대체된 경우가 대부분임

5. 전기전자, 기계류 품목군의 경합 치열

- HS 4단위, US\$백만 이상 수출 품목 중 한/중/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은 주로 전기전자, 기계류 품목군에 속함
 - 1998년 3국의 경합 수출 품목 43개 중 10개가 기계류, 20개가 전기전자류 품목이었으며,
 - 이러한 추세는 5년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 2003년 3국 경합 수출 품목 52개 중 9개가 기계류, 23개가 전기전자류 품목이었음
- 2003년 대브라질 10대 수출 품목 중 한/중/일에 모두 포함된 품목으로는 전자직접회로와 사무용 기계 부품임
 - 전자직접회로는 우리의 대브라질 1위, 사무용 기계 부품은 5위 수출 품목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6. 수출확대 대책

- 수출 품목의 다양화와 신규 수출 품목 시장 개척 필요
 - 2003년 HS 4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10대 품목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6%로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조립용 부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비중은 중국의 44.2%, 일본의 36.6% 보다 높아 이들 국가에 비해 특정 품목에 우리의 수출이 의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수출 품목의 편중화 현상은 우리 수출규모가 대브라질 투자진출기업의 경영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수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수출 증대에 제약을 받게 됨으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되, 이와는 별도로 수출품 다변화를 통한 수출 증대 및 시장점유율 확보 필요

- 대브라질 투자 증대에 따른 설비 및 제품 부품의 수출 기회 모색
 - 2003년 하반기부터 브라질 가전제품, 통신기기(휴대폰 등), 자동차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현지 투자도 활기를 띠게 됨
 -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현지 생산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대.기아 자동차 조립생산라인 설치 추진중
 - ※ 현재 총 31개사가 브라질에 진출, 운영중이며 이 중 8개사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아울러 브라질 정부는 첨단제품의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금년부터 우리의 대브라질 투자는 확충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 우리 설비 및 부품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호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임

- 수출용 원부자재 및 첨단 IT 분야 품목 공략
 - 브라질 주요 수출호조 품목으로 꼽히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석유 화학제품, 신발류, 섬유류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수출 확대 필요
 - 많은 해외 다국적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했으나 주로 단순 조립을 하고 있으며 첨단 IT 분야의 경우 아직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태임. 또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량 도입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 경쟁력이 하락중에 있어 이와는 차별되는 첨단 기술의 제품으로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관건

- 지방 상권 개척 노력 확대
 - 브라질은 전국이 5개 지역(남부, 동남부, 중부, 북동부, 북부)으로 구분되어 전국적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우리의 대브라질 수출은 상파울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상권에 대한 마케팅 활성화가 요구됨

- 브라질 정부의 신산업정책 및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 수출품목에서 벗어나 수출 품목 확대
 - 신산업정책은 산업고도화, 고용창출,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국고 및 국책은행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으로 기계장비구매지원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육성대책, 자본재 산업지원, 반도체 산업 육성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올해 유망 분야인 석유시추선, 석유정제설비, 전동차, 의료장비 등 정부조달 분야에 적극 참여

[첨부]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일 1위 수출 품목 리스트

<한국의 1위 수출 품목 리스트>

1998(8개)		2003(6개)	
HS 코드	품목명	HS 코드	품목명
4011	타이어	3903	스티렌
4013	고무제의 인너튜브	7011	전구용 유리외피
4108	새미 가죽	7410	동의 박
5407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8402	증기발생보일러
5513	면혼방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8523	기록이 안된 저장매체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
6114	뜨개질의 기타 의류		
8702	자동차(10인 이상)		

<중국의 1위 수출 품목 리스트>

1998		2003	
HS 코드	품목명	HS 코드	품목명
2704	코크스와 반성코크스	2704	코크스와 반성코크스
4202	가방, 지갑, 케이스	2712	왁스
6201	남자용 코트류	2835	인산염
6302	런넨 제품	2936	비타민
6402	고무.플라스틱제 신발류	2939	식물 알칼로이드
6403	가죽제 신발류	4202	가방, 지갑, 케이스
7323	식탁.주방용품	5407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8470	계산기.전자수첩	6110	잠바, 스웨터, 가디건
8509	가정용 전기기기	6203	남성용 슈트, 바지
8516	난방.전열 기기	6404	신발류
8519	음성재생기기	7315	체인
9502	사람인형	8104	마그네슘
9503	완구	8504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9505	축제.오락용품	8507	축전지
		8516	난방.전열 기기
		8518	마이크, 확성기, 이어폰
		8521	영상기록.재생용 기기
		8522	픽업카트리지
		8527	무선전화.라디오방송수신기기
		8529	안테나
		8539	램프
		9013	액정 디바이스 등
		9405	램프, 조명기구
		9503	완구
		9506	운동용구
		9603	비, 브러쉬
		9608	볼펜, 만년필 등

<일본의 1위 수출 품목 리스트>

1998		2003	
HS 코드	품목명	HS 코드	품목명
2925	카르복시이미드관능화합물	2925	카르복시이미드관능화합물
6813	마찰재료 및 제품	6903	내화성 도자제품
6903	내화성 도자제품	7312	연선.로프.케이블
7002	유리제의 구.봉.관	7411	동관
7225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
7306	봉합한 철강 관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7312	연선.로프.케이블	8472	사무용기계
7411	동관	8480	주형틀, 주형베이스
8417	공업용 노와 오븐	8482	베어링
8452	재봉기 및 재봉기용 바늘	8511	내연기관의 시동.점화용기기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로울	8528	TV수신기기, 모니터, 영상프로젝터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	8532	축전기
8458	금속 절삭가공용의 선반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8459	드릴링, 볼링, 밀링용 기계	8714	자동차 부품
8482	베어링	9009	복사기
8503	전기기기 부품	9010	사진현상실용의 기기
8511	내연기관의 시동.점화용기기	9011	광학현미경
8521	영상기록.재생용기기	9029	속도계.적산회전계
8707	차체		
8711	모터사이클		
8714	자동차 부품		
9006	사진기		
9010	사진현상실용의 기기		
9029	속도계.적산회전계		
9207	전자악기		
9608	볼펜.만년필		